



塔身の屋蓋石の「屋蓋石받침」이 없으면 三級으로 統一되고 擔下가 曲線을 지우며 四隅轉角에서 강한 反轉을 보이는 例는 저 佛日寺址 五層石塔의 屋蓋石樣式에 相通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壇部의 樣式과 屋蓋石의 手法는 高麗時代의 石塔樣式으로 高麗中期の 所作으로 推定된다.

註

- ① 基壇部에 眼象과 蓮花紋이 彫刻된 石塔의 例
- ① 淨兜寺址五層石塔(眼象) ② 定山西亭里九層石塔(眼象) ③ 論山灌燭寺三層石塔(眼象) ④ 小臺里五層石塔(眼象) ⑤ 江陵正東津里五層石塔(眼象、蓮花紋) ⑥ 神福寺址三層石塔(眼象、蓮花紋)
- ② 考古美術 第三卷第一號 拙稿參照

資 料

新羅銘瓦片 二題

李 弘 植

近者에 慶州에서 入手한 左記 在銘의 瓦片을 紹介한다.

一、「官瓦」「東窯」

慶州東郊 普門里에서 採取하였다는데 平瓦에 「官瓦」「東窯」를 陽刻으로 反覆시킨 瓦片이 數片 나와 있는데 管見에 의하면 이것은 從來 보지 못한 瓦片이다. 新羅時代를 通하여 宮闕, 寺院, 官衙에 設었던 優麗한 蓋瓦가 無數하게 나오고 있으며 下代의 憲康王代에는 民屋도 다 蓋瓦를 設었다하니 莫大한 官需, 民需의 蓋瓦가 播造되었을 것이다. 이 瓦片을 通해서 생각되는 것은 우선 「東窯」에서 구어낸 官瓦」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東窯는 常設의 窯로서 그 自體가 官營인지 또는 官需, 民需의 蓋瓦를 隨時로 注文에 應하여 播造한 곳인지 알 수 없으나 後者의 境遇가 自然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東窯」라는 名稱에서 西窯, 南窯, 北窯도 있을 수 있다는 點이며 이 窯는 瓦, 埴專門의 窯인지 또는 이 외에 一般土器도 구어냈는지 모르겠으나 普通으로 생각할 때에 瓦窯만으로도 넉넉히 別途로 成立되었을 것이다. 三國時代以來로 瓦博士도 보여서 瓦匠의 重要한 技術은 瓦當의 優麗한 文樣의 彫刻뿐만 아니라 窯의 構築, 瓦土의 練成, 燻瓦의 熱度 등 簡單치 않은 能熟한 技術이 必要한 것을 近者의 補修工事を 通해서 새삼스러이 느끼는 바이라 이와 같은 瓦片이 特히 本人의 關心을 갖게 되었다.

二、「令妙寺」在銘瓦

慶州 西南郊 輿輪寺北方(約三百m)에서 採集하였다 한다. 「三國史記」에는 善德王四年에 靈廟寺가 落成되었다고 하는데 「三國遺事」에는 靈妙寺로 되어 있고 葛項寺塔에는 零妙寺, 禪林寺址出土 鐘銘에는 令妙寺로 되어 다 같은 절을 그렇게 表記한 것으로 보며 이 瓦銘도 右記의 鐘銘과 같은 것으로 가장 省略된 普遍的인 것으로 보겠다. 新羅人의 漢字使用法에는 往往이 이와 같은 自由로운 面을 보이고 있는데 元來 正式으로는 「三國史記」의 것이 맞을 것이다. 이 靈廟寺의 位置에 對하여서는 아직 몇 가지 說이 있는만큼 輿輪寺北쪽에서 出土된 이 瓦片도 後考에 資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